

# 순천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 맞춤형 지원 강화

### 창의적 지역 인재 양성 및 학교 교육환경 개선 위해 72억 원 지원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복지 향상에 중점, 다양한 사업비 지원 나서

순천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학부모와 학교, 교육지원청에 다양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 지역 내 창의적 지역 인재 양성과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경비 72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전년 대비 2.97% 증액된 금액이다. 교육경비는 ▲학교 공간혁신 사업 8억 원 ▲고등학교 지원 7억 5천만 원 ▲교육복지 향상 11억 8천4백만 원 ▲외국어 교육 14억 5천만 원 ▲창의인성체험활동 12억 2천만 원 등이며, 6개 분야 35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 중 '초등 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사업'은 전용 단말기로 입학생 자녀의 등하교 정보를 학부모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것으로 각종 범죄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에서 등하교하는 장거리 통학생을 위한 '에듀택시 지원'과 2020

년에 중단되었던 국제교류 지원은 외국 자매결연 체결학교와의 교류협력 프로그램 및 공동수업 등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시는 3월부터 '초등학교 입학지원금'을 관내 초등학교·특수학교 등 1학년 입학생들에게 연간 1인당 1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150명에게 학원 및 교습소 수강료의 50%를 지원하는 교육바우처사업을 시행한다. 이 밖에도 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다양한

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교육의 질 향상과 최적의 교육 환경 조성 및 교육의 공공성 실현에 이바지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미래 세대인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어 순천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이가 행복한 교육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부모와 학생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 곡성교육문화회관, 상반기 운영위원회 개최



곡성교육문화회관은 지난 9일 곡성교육문화회관 평생교육실에서 상반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심의하고 회관 발전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곡성교육문화회관은 지역민과 함께 삶을 향유하는 문화공간 조성을 운영지표로 △사람과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독서 △소통하고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평생교육 △지역민의 건강생활을 가꾸는 수영장 △이용자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 구현을 주요 사업으로 선정하여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생태 감수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역점사업으로 선정하여 관심을 모았다. 세부사업으로 △특화주제 「생태환경」 자료코너 운영 △북극레이션 「생태책방 책뜰」 운영 △지역민 인식 개선 위한 생태 환경 교육을 운영하여, 세계적 화두인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환경 보전의 필요성을 공유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형조 곡성교육문화회관 운영위원장은 지역사회 문화 중심으로서 곡성교육문화회관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며, 이용자 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곡성=양혜영 기자

## 고흥교육지원청, 2023 초등 학교교육계획 공유 워크숍 개최



고흥교육지원청은 지난 9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등 교무부장 및 연구부장 예정자 34명을 대상으로 '2023. 초등 학교교육계획 공유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관내 초등 교무부장 및 연구부장 예정자 34명 대상

이번 워크숍은 '고흥교육 2023'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 학교교육계획 초안을 공유하여 학생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교육계획을 만들어 가고자 마련되었다. 기존의 전달·점검 중심의 연찬회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교육계획과 고등학교의 비전과 방향·역점 과제·마을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에 대해 생각을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아울러 고흥의 많은 작은 학교 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고흥분청문화박물관

등 지역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을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고흥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미래교육', '자율화', '학생성장' 등의 담론과 고흥교육의 핵심가치인 '자율·감성·나눔·연결'이 학교 현장에 잘 스며들어 실천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학교현장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는 고흥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고흥=기동취재본부

## 광양평생교육관, '불용도서 나눔 행사' 운영

광양평생교육관은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를 위하여 '불용도서 나눔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용결정 되었지만 상태가 양호하여 기증 가치가 있는 도서를 선별하여 나눔한다. 그림책부터 성인도서까지 총 3,000여권의 책이 준비되어 있다. 오는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총 6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양평생교육관 101호 강의실에 행사가 진행된다. 기관 및 단체, 개인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교육관을 방문하여 비치된 불용도서 중 원하는 도서를 자유롭게 고르고 수령증을 작성한 후 가져가면 된다. 본 행사 사전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영



한 '재활용 예코백 기부 캠페인'에서 기부된 예코백도 행사장에 비치할 예정이다. 책을 담을 갈 가방이 필요한 분들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광양=김현근 기자

## 장성공공도서관, 야외 천체관측 등 과학 체험 행사 진행

장성공공도서관은 2023년 겨울 특강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립광주과학관과 연계한 '어린이를 위한 별빛천문관측'을 운영했다. 지난 2월 9일 장성 지역 초등학생 45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프로그램은 로봇이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댄스공연, 나만의 망원경 만들기 등 신기하고 재미있는 과학 체험으로 구성했다. 특히 국립광주과학관의 이동식 과학 차량(루체리움 과학스쿨)과 이동식 천체관측 차량(루체리움 스타카)이 도서관을 찾아와 반사망원경을 활용하여 태양을 관측해보고 천체 VR 기기를 통해 우주를 체험해보는 야외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얻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로봇이 춤을 추는 게 신기했고 VR 기계로 우주를 볼 수 있어서 신선했다.", "하루밖에 들을 수 없어서 아쉽다. 이런 수업이 자주 있으면 좋겠다." 등

### 국립광주과학관과 연계, '어린이를 위한 별빛천문관측' 운영



의 소감을 말했다. 김광일 관장은 "우리 도서관은 이번 행사와 같이 앞으로도 체험 위주의 융합형 과학 프로그램을 장성 지역 어린이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장성공공도서관은 지역 학생들이 과학 분야에 흥미를 느끼고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외에도 조선대학교 조영

주 교수님과 로봇 코딩으로 AI·SW 역량 키우기, 로봇을 직접 조종해보고 팀별 미션을 수행하는 로봇마스터 수업 등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399-1621)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장성=김수권 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